"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아산사슴건강의 집으로 오세요~!"

아산사슴건강의집에 대해 간단한 소개 바랍니다.

"자연과 인접해 있는 본 농장은 150여 마리의 사슴을 사육하고 있으며, 통나무집 쉼터를 마련, 휴양지 및 건강식품으로 고객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들이 제품을 구입하기위해 방문할 시 통돼지 구이, 사슴 샤브샤브 등 무료 식사 서비스와 주말을 가족과 함께 통나무집에서 숙박하며 삼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휴양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아산사슴농장이 산업의 어려움을 타지 않는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경을 하는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가 자연 그대로를 사용했고, 사슴의 먹이도 쑥, 날콩, 한약재를 넣어 만든 전용 한방 사료로 특수 제조해 일반사료와 차별화 시켰습니다.
싸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상용 꽃사슴과 앨크 등 120여 마리가 녹용 채취용으로 사육되며, 녹용이 나기 시작한지 50일 정도 되면 50cm정도의 길이가 되고 70일 정도 자라면 채취합니다. 여기에 녹혈을 사용해 농장 경영 10년의 경험과 기술로 녹용탕(사슴 육골즙)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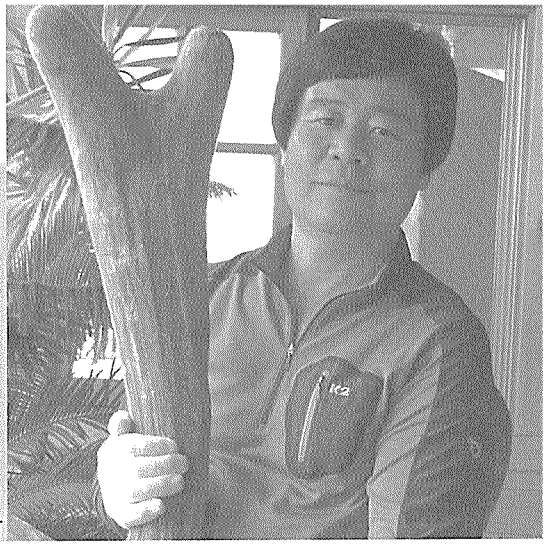
위생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계십니까.

" 바닥관리를 한달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목장이 아니기 때문에 엘크 1마리당 차지하는 우리가 작다보니 1달에 한번 관리를 해주어야 만합니다. 그러나 바닥이 시멘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슴의 변을 다 제거 할 경우 사슴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좋지 않아 일부는 남겨 놓고 있습니다.
사슴의 변은 인근 농장의 퇴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장경영의 남다른 경영철학이 있다면…

"사슴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축종이기 때문에 무게나, 품질 면에서 속이기 쉬운 제품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장의 녹용은 결코 속이는 법이 없으며 정직과 신뢰를 파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녹용을 판매하

'아산사슴농장에는 불경기가 없다?'
남들은 양록 산업을 침체산업이라고 말하지만 아산사슴농장 최원묵 사장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양돈업을 하다 업종을 바꾼 최 사장은 사슴이야 말로 친환경적인 동물이라고 말한다. 최원묵 대표에게서 사슴이야기를 듣는다.



최원묵 사장

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부지확보를 통해 넓은 사슴목장을 경영하고 싶습니다. 넓은 초원에서 사슴의 야생 습성을 살려 뛰어 다니거나, 나뭇잎을 따먹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서야 비로소 사슴에게도 자연과 더불어 사육이 되는 거라 보겠습니다."